

마트서 장보고 통원 치료...귀국후 보름간 일상 생활

광주 확진자 동선 파악 추적

입국 16일후에야 전남대병원 이송 함께 여행한 가족들 별다른 증상 없어 태국? 공항? 국내? 감염경로도 의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16번째 확진 환자인 40대 여성이 태국에서 광주로 돌아온 뒤 보름여 동안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접촉자와 동선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

4일 광주시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6번째 확진환자인 A(여·42)씨는 지난 달 15일 무안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한 뒤 방콕과 파타야 등을 여행했다. 당시 여행에는 A씨의 어머니 등 5명이 동행했다. A씨와 일행은 같은 달 19일 무안공항을 통해 국내로 다시 들어온 뒤 거주지인 광주와 나주 등으로 흩어졌다. 당시 A씨 일행이 타고 온 비행기에는 탑승객 166명, 승무원 6명 등 총 172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입국 후 A씨는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으로, 어머니는 아들, 며느리와 함께 거주하는 나주로 갔다. 다행히 A씨 어머니와 동거가족은 이상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마을회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이상 증상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단 1%의 감염 우려도 막기 위해 A씨 어머니와 동거가족 3명을 격리 조치했으며, 능동감시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A씨는 귀국 후 일주일 정도 마트를 방문해 설 명절을 준비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귀국 후 일주일간 별다른 증상이 없던 A씨는 설 당일인 지난달 25일부터 갑자기 오한과 발열 등이 나타났고, 같은 달 27일 광주21세기병원과 전남대 학교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다. 이어 28일 폐렴 치료를 위해 광주21세기병원에 입원했으나 열이 38.7도를 오르내리고 피 섞인 가래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지난 3일 전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다만 A씨와 동반여행을 한 일행들이 별다른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으면서, 감염경로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 무엇보다 A씨가 폐암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만큼 감염에 취약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비행기 내 또는 무안공항에서 감염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태국 내 감염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태국은 연간 1000만명의 중국인이 방문할 정도로 중국인의 최대 해외여행지로 꼽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에만 1100만명의 중국인이 태국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태국은 한국인도 매년 200만명 이상이 찾는 최대 여행지이기도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지역인 중국 우한시에서 태국 방콕 수완나폼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도 하루 3편으로, 현재는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2월 한 달동안 2만 여명이 중국 우한에서 태국을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선호 여행지도 A씨 일행이 방문했던 방콕, 파타야 등과 겹친다. 여기에 우한과 가까운 광저우에서도 방콕 등으로 공항 간 하루 13편의 항공편이 운항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태국 유입은 예상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게 태국 현지 한국인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태국 내 한국 교민들이 운영하는 일부 사이트에서는 중국 관광객이 많이 찾는 재래시장과 쇼핑몰 등 게재해 놓고 교민의 방문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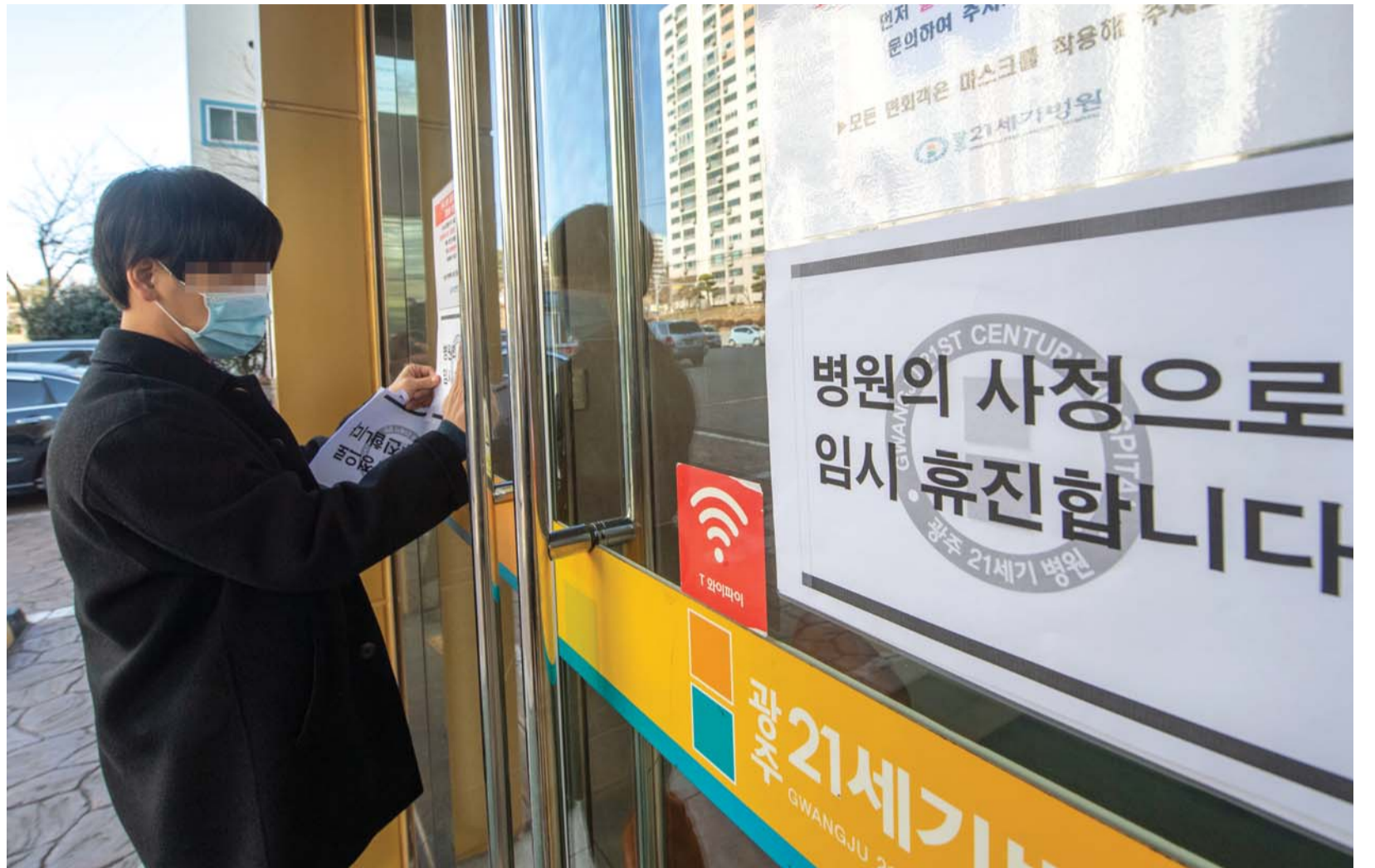
광주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태국에서 유명한 여행 명소에는 한국인 뿐 아니라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다"면서 "통선이 많이 겹치다 보니 중국인과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16번 확진자도 태국에서 중국인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환자가 어디서 어떤 노출이 있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조사결과를 봐야 한다"며 "여행지에서 중국 후베이성 주민과 접촉했을 가능성 등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감염원과 감염경로는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다. 태국을 오염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역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날 오전 기준 태국에서는 19명의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 본부장은 "16번 환자는 저희가 보기에도 이상한 점이 많기 때문에 현지에서 누구와 어떻게 접촉했는지를 상세하게 조사해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태국을 (감염경로나 감염원으로) 특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국내에서 16번째로 확진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거쳐간 광주21세기병원이 4일 임시 휴진에 들어갔다. 병원 관계자가 임시 휴진을 알리는 전단을 문에 붙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확진자 자녀 다니던 학교 전수조사·긴급방역 광산구 아들 어린이집은 17일까지 임시폐쇄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가족의 근황에도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감염이 확인될 때까지 확진자와 가족이 함께 지낸데다 3명의 자녀는 어린이집과 학교,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역 교육계도 '코로나 쇼크'에 휩싸인 분위기다. 확진자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서는 방학 중 등교한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방역이 이뤄졌고, 대학들은 졸업식과 입학식을 아예 취소하는 등 학사 일정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4일 국내 16번째 확진자인 A(여·42)씨의 딸 B양(17)이 광주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오후 장휘국 교육감 주재로 긴급 관계부서 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16번째 확진자의 세 자녀 중 고교생과 7살 자녀는 남편과 함께 자가격리된 상태이며, 대학생 자녀는 인대봉합수술을 받고 현재 광주21세기병원에 입원 중이다. A씨가 치료를 받은 광주21세기병원은 입원환자 치료 외엔 휴업 중이다.

교육청은 우선 재학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방학 중 등교일인 지난달 29

일부터 31일이 B양의 잠복기와 겹친 점을 감안, 당시 등교생을 대상으로 발열이나 오한 등 의심증상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또 오는 19일로 예정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도 잠복기가 끝나는 14일까지 이상증상자가 없을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3월 2일 예정된 입학식 개최 여부도 신중히 검토 중이다.

확진자의 아들 C군이 다니는 D어린이집은 임시 폐쇄됐다. 광산구청은 이번 확진환자 발생과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고려해 확진자의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해 오는 17일까지 임시 폐쇄 조치했다. 이 어린이집에는 C군을 포함해 원아 49명이 등원하고 있고, 교직원 13명이다.

확진자 남편의 근무처가 있는 광양시도 비상이 걸렸다. A씨 남편은 광양의 한 철강가공업체에서 근무해 왔으며, 보건당국은 해당 회사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에 들어간 상태.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인적·물적자원 총동원 확산 막는다

긴급 합동 대책·전문가 연석회의

광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과 관련,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을 총 동원해 확산 차단에 집중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광주송정역과 광주공항, 광전동고속버스터미널, 광주역 등 광주의 주요 관문에 발열감지기도 설치(광주일보 2월 4일자 1면)하기로 했다.

이윤섭 광주시장이 주재한 이날 대책회의에는 시 간부와 광주시의회 회장, 전남대병원장, 시교육감, 전남대·조선대·호남대·광주대·남부대 총장, 광주지방경찰청장,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광주지방식약청장, 31사단장, 제1전투비행단장, 503여단장, 자치구청장 및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각 기관과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총 동원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질병관리본부의 확진자 이동경로·접촉자 확인 등에 지역 기관·단체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체육행사 등도 이번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전남도도 긴급 의약전문가 연석회의를 갖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정약용실에서 전남도 의사회 이필수 회장, 약사회 윤서영 회장, 간호사회 장영숙 회장 등 의료기관 단체 대표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의약 전문가 연석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 상황을 공유하면서, 도와 의료기관 단체가 지역사회 유입 방지와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협력 대응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20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 공모

지역문화진흥원은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적 삶의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2020년 문화가 있는 날 지원사업을 공모합니다. 전국의 문화·예술단체와 지역 청년기획자, 수혜 직장과 유아 보육시설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지역의 다양한 주제들이 만드는 문화 플랫폼으로 누구든지 어디서나 우리 지역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지역 맞춤형 사업

공모 대상 문화·예술단체
접수 기간 2020년 1월 31일 ~ 2월 14일
문의 02-2623-3123

지역문화우리

청년문화 기획자가 발견하고 만드는 우리 지역만의 문화, 지역의 청년 문화기획자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 활동 과정 지원

공모 대상 지역 청년 문화 기획 단체
접수 기간 2020년 1월 29일 ~ 2월 20일
문의 02-2623-3124

직장 문화배달

내가 일하는 직장이 문화적 일상이 된다. 워라밸이 필요한 대한민국 직장인들에게 문화 한 편을 배달하는 사업

공모 대상 및 접수 기간
+ 참여직장 : 2020년 1월 20일 ~ 2월 13일
+ 문화·예술단체 : 2020년 2월 4일 ~ 2월 19일
문의 02-2623-3128

청춘마이크

청년예술가들의 열정으로 국민들과 함께 만드는 문화가 있는 날 청년들에게 문화가 있는 날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공모 대상 권역별 예술가
접수 기간 2020년 2월 17일 ~ 3월 4일
문의 02-2623-3126, 3135

동네책방 문화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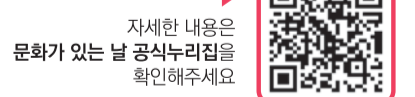
지역을 바꾸는 동네책방, 책을 매개로 다양한 문화 공동체를 만드는 동네책방의 주민참여형 활동 지원

공모 대상 참여책방(복합문화공간 포함)
접수 기간 2020년 1월 28일 ~ 2월 12일
문의 02-2623-3129

동동동 문화놀이터

찾아가는 문화놀이터, 예술로 크는 아이들! 전국 유아 보육·교육 시설로 찾아가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공모 대상 및 접수 기간
+ 유아 보육시설 : 2020년 1월 22일 ~ 2월 14일
+ 문화·예술단체 : 2020년 1월 22일 ~ 2월 7일
문의 02-2623-3129



* 지역문화진흥원은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추진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